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박은정* · 하은혜**

초 록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57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측정변인들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외상경험 그리고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불안은 대체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사회불안 모형은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으며,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보다 사회적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으로 가는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있어 사회적 외상경험의 직접 영향이 비합리적 신념을 거치는 간접 영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사회불안, 외상경험, 비합리적 신념, 매개효과

* 숙명여자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교신저자

I. 서 론

사회불안 장애는 매우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로, 청소년기에 발병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Beidel, 1991), 약물남용(Clark, 1993) 및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윤란, 2004).

1980년대 이후로 성인 대상의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에서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불안 척도가 개발되었고(문혜신·오경자, 2002; Beidel, Turner, & Morris, 1995; La Greca & Stone, 1993), 사회불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지요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오경자·양윤란, 2003a, 2003b). 사회불안의 주요발병시기인 청소년기의 병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요인의 규명과 각 요인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사회불안의 유발 원인으로 사회적 상황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선영, 2003; Clark & Wells, 1995). 최정훈과 이정윤(1994)이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검토한 결과, 사회불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할 때, 집단의 리더가 될 때, 누군가에게 비평을 받을 때 등의 공적 정체감을 위협받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외상경험은 이러한 공적인 상황이나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한 후 당사자에게 심리적 외상이 되어 이후 유사 상황에서도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오경자와 양윤란(2003a, 2003b)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요인을 규명하고자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중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은 고전적 조건형성 과정을 통해 사회공포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동시에,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이끌어 사회기술의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적 외상경험을 ‘대인 관계에서의 외상경험’과 ‘수행에서의 외상경험’으로 구분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경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집단을 제외한 중·고등학교, 남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대한 직접 경로

가 유의하여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의 발생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유발된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상황에서 외상을 경험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사회불안과 같은 정신 병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인지요인의 영향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Beck, Emery, Greenberg(1985)는 인지과정을 취약성-스트레스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트레스 즉,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적 장애가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Clark과 Wells(1995)는 위협적인 대인관계 상황에 당면했을 때, 역기능적 신념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 상황의 위협정도를 과대평가하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처능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높은 스트레스 경험을 한 후에 증상 발현이나 회복 속도, 그리고 장기적 영향력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은 스트레스 경험 자체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다(McFarlane & Yehuda, 1996).

사회불안과 관련한 인지적 접근들에서는 인지 내용 중 비합리적 신념, 역기능적 신념과 자동적 사고가 사회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함을 밝히고 있다(조용래, 1999, 2006; 최정훈·이정윤, 1994). Clark과 Wells(1995)는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사회적 상황을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자기 자신 및 그들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행동방식에 대해 갖고 있는 일련의 역기능적 신념의 결과라고 보았다. 즉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개인은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말 검사를 통해 자동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사회불안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정적 자기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lass & Furlong, 1990). 최근 국내에서는 사회불안과 관련한 인지요인으로 자의식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의식의 하위요인 중 공적 자의식은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재, 1997; 정승아, 2005).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 요인 가운데 비합리적 신념은 다른 인지요인에 비해 비교적 고정화되고 안정적이며, 어린 시절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내용과 정신 병리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요인의 연구들

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여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Alfano, Beidel과 Turner(2002)에 따르면 사회불안이 높거나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은 아동들의 경우도 부정적 인지를 많이 보이며 사회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등, 성인 사회공포증 집단과 유사한 부정적 인지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 사회불안과 관련한 인지요인의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지매개 이론을 사회불안에 적용시켜, 사회불안에 관련된 인지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유지하는지 규명하고 있다. 조용래(1999)는 사회공포증상의 발생과정과 관련하여, 역기능적 신념이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주로 자동적 사고의 매개를 거쳐 사회공포증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불안의 일종인 발표불안의 인지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역기능적 신념은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완전매개를 거쳐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용래,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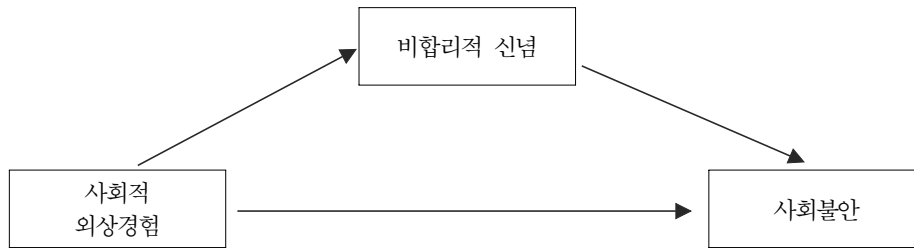
이 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 사회불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완벽주의 성향이 부정적 사고를 매개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부정적 사고가 대인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은영, 2005).

청소년기가 사회불안의 주요 발병시기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불안 증상을 유발하는 상황을 경험한 후, 청소년 개인의 인지적 취약성이 심리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불안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나(La Greca & Lopez, 1998; Morris & Masia, 1998),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요인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 매개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불안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1~3학년 301명, 인문계 고등학교 1~2학년 273명, 총 574명(남자 281명, 여자 293명)이었다.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14.86세,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15.20세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해당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담임교사 협조 아래 연구의 취지와 응답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배포 당일 혹은 2~3일 후에 회수하였다.

2. 측정도구

1) 외상경험 척도

사회불안과 관련된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경자와 양윤란(2003a)이 제작한 외상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수줍고 말이 없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사곤 했다”와 같은 사회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을 측정하는 총 10개의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대인관계 관련 외상 경험’과 ‘특정 수행상황 관련 외상경험’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77로, 각 요인별 신뢰도는 α =.67, α =.62였다.

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SASC-R)와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구성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행동 및 사고’,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96으로, 각 요인별 신뢰도는 수행불안 α =.9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α =.92, 회피행동 및 사고 α =.87,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α =.83, 비주장성 α =.84였다.

3) 비합리적 신념 검사(Irrational Belief Test)

Jones(1969)가 Ellis(1962)의 비합리적 신념 10가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최정훈과 이정윤(1994)이 번안한 비합리적 신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3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인정에 대한 요구’, ‘개인적 완벽성’, ‘비난 경향성’, ‘과국화’, ‘정서적 무책임감’, ‘과잉불안염려’, ‘문제회피’, ‘의존성’, ‘무기력’, ‘완벽한 해결’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3, 하위척도들의 신뢰도 계수 범위는 α =.36~ α =.64였다.

3. 자료분석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MOS 4.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이론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매개변인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개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회귀 분석의 경우 한 변인은 하나의 역할만을 해야 하므로 매개변인의 도입 및 평가가 쉽지 않다. 또한 경로 분석은 회귀 분석에 비해 매개변인을 쉽게 다룰 수 있지만, 이론변인이 아닌 측정변인을 사용함으로 측정오차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홍세희, 2000).

모형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는 홍세희(2000)가 제시한, 카이제곱(χ^2) 검증, 비표준 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비교 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표준 부합치(Normed Fit Index: NFI)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카이제곱(χ^2) 검증의 경우, 영가설이 ‘완벽한 적합도에 대한 가설검증’으로,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해서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는 단점과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TLI, CFI 및 N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하며(홍세희, 2000),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불안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불안 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은 각각의 측정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행외상경험보다 대인외상경험이 전반적으로 사회불안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외상경험과 비합리적 신념은 수행외상경험과 대인외상경험 모두 비합리적 신념 측정변인들과 대체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합리적 신념의 '의존성'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불안과 비합리적 신념 척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비합리적 신념의 '정서적 무책임감'과 '의존성'은 사회불안의 측정변인들과 매우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2.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검증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한 결과가 <표 2>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외상경험이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간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본 연구 모형(부분매개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TLI=.842$, $CFI=.880$, $NFI=.857$ 로 홍세희(2000)가 제안한 기준인 .90에 부합하지 못 하였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는 $RMSEA=.085$ 로 보통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경쟁모형으로 부분매개모형의 등지모형(nested model)인 완전매개모형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 외상경험이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간접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781$, $CFI=.833$, $NFI=.811$, $RMSEA=.100$ 로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하였다.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Delta\chi^2=192.047$, $p<.01$). 따라서 완전매개모형은 부분매개 모형의 등지모형이기 때문에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1> 사회적 외상경험, 비합리적 신념, 사회불안의 상관관계(N=574)

척도	하위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회적 외상경험	1. 대인외상경험	1.00																			
	2. 수행외상경험	.58**	1.00																		
	3. 외상 총점	.89**	.89**	1.00																	
	4. 인정 요구	.19**	.21**	.22**	1.00																
비합리적 신념	5. 완벽성	.21**	.27**	.27**	.59**	1.00															
	6. 비난경향성	.07**	.10**	.10**	.16**	.36**	1.00														
	7. 파국화	.20**	.24**	.24**	.36**	.39**	.22**	1.00													
	8. 무책임감	.06**	.12**	.10**	.05**	.11**	.08**	.35**	1.00												
	9. 과잉불안	.24**	.21**	.26**	.44**	.55**	.29**	.39**	.09**	1.00											
	10. 문제회피	.16**	.25**	.23**	.27**	.37**	.23**	.25**	.23**	.34**	1.00										
	11. 의존성	.00	.00	.00	.23**	.07**	-.03**	.09**	.07**	.06**	.10**	1.00									
	12. 무기력	.18**	.22**	.22**	.25**	.44**	.31**	.14**	.11**	.43**	.35**	-.04**	1.00								
	13. 완벽해결	-.08**	-.12**	-.11**	.11**	-.01**	-.03**	.01**	.10**	-.07**	-.19**	.14**	-.17**	1.00							
	14. 비합리신념 총점	.23**	.28**	.28**	.67**	.76**	.49**	.62**	.42**	.70**	.54**	.33**	.56**	.16**	1.00						
사회불안	15. 수행불안	.58**	.56**	.64**	.22**	.34**	.08**	.31**	.13**	.33**	.28**	.04**	.29**	-.08**	.36**	1.00					
	16. 평가 두려움	.49**	.48**	.54**	.43**	.45**	.19**	.30**	.05**	.45**	.29**	.04**	.36**	-.10**	.49**	.63**	1.00				
	17. 회피행동-사고	.53**	.44**	.55**	.13**	.27**	.08**	.19**	.10**	.33**	.24**	-.09**	.30**	-.13**	.27**	.75**	.63**	1.00			
	18. 생소불안	.54**	.41**	.54**	.28**	.38**	.16**	.29**	.07**	.38**	.29**	-.01**	.31**	-.13**	.40**	.72**	.69**	.72**	1.00		
	19. 비주장성	.51**	.41**	.52**	.34**	.39**	.13**	.31**	.03**	.41**	.34**	.08**	.30**	-.14**	.43**	.70**	.72**	.66**	.76**	1.00	
	20. 사회불안 총점	.61**	.54**	.65**	.34**	.44**	.15**	.33**	.08**	.45**	.34**	.02**	.37**	-.14**	.46**	.88**	.87**	.85**	.87**	.88**	1.00

* $p < .05$, ** $p < .01$

[그림 2]에 제시된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각 이론변인간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론변인과 측정변인간의 경로계수는 비합리적 신념의 완벽한 해결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여, 측정변인들이 이론변인들을 적절히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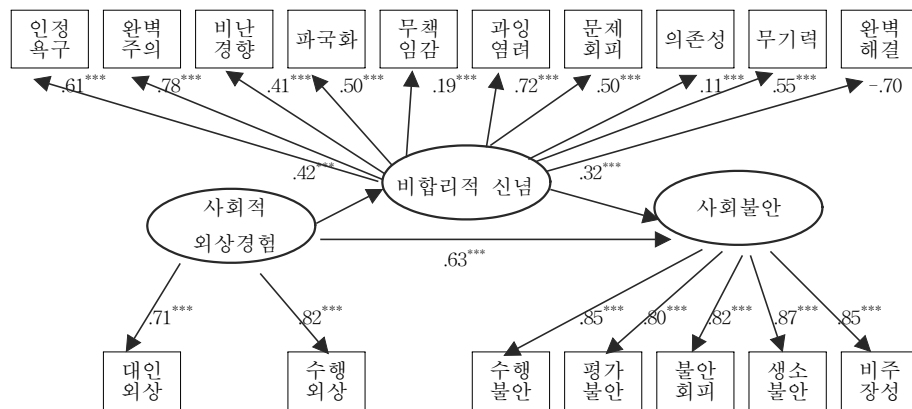
사회적 외상경험이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사회불안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27로 나타났다.

<표 2> 전체집단의 모형 적합도 지수(N=574)

	χ^2	df	TLI	CFI	NFI	RMSEA
완전매개	787.324	117	.781	.833	.811	.100
부분매개	595.277	116	.842	.880	.857	.085

TLI: the Tucker-Lewis index; CFI: the comparative fit index; NFI: the normed fit 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p < .001$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 < .001$)

[그림 2] 주요 경로계수(N=574)

3. 남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검증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한 결과가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의 경우, 부분매개모형의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TLI=.866, CFI=.819, NFI=.817로 홍세희(2000)가 제안한 기준인 .90에 다소 미치지 못 하였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는 RMSEA=.090으로 보통 적합도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TLI=.847, CFI=.884, NFI=.841로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하였으나, 절대적 적합도 지수는 RMSEA=.085로 보통 적합도를 보였다.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남 $\Delta\chi^2=56.565$, $p<.01$, 여 $\Delta\chi^2=128.528$, $p<.01$).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경로계수를 보면, 부분매개모형의 각 이론변인간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외상경험이 비합리적 신념을 거쳐 사회불안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남학생에서 .18, 여학생에서 .12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모형 적합도 지수(N=574)

		χ^2	df	TLI	CFI	NFI	RMSEA
남	완전매개	433.448	117	.783	.834	.789	.098
	부분매개	376.883	116	.866	.819	.817	.090
여	완전매개	488.979	117	.770	.824	.784	.104
	부분매개	360.451	116	.847	.884	.841	.085

TLI: the Tucker-Lewis index; CFI: the comparative fit index; NFI: the normed fit 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p < .001$

<표 4> 성별에 따른 부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N=574)

		표준화된 회귀계수	
		남(n=281)	여(n=293)
사회적 외상경험	→ 비합리적 신념	.52***	.37***
비합리적 신념	→ 사회불안	.34***	.32***
사회적 외상경험	→ 사회불안	.56***	.68***

*** $p < .001$

4. 모형수정

본 연구에서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이 낮은 적합도 지수를 보이고,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보다 사회적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으로 가는 직접효과가 크게 나옴에 따라,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을 수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표 1>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 변인 중 다른 변인들과 상관이 낮은 ‘비난경향성’, ‘정서적 무책임감’, ‘의존성’, ‘완벽한 해결’ 4개의 변인들을 제거한 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5>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부분매개모형의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TLI=.895, CFI=.929, NFI=.914로 홍세희(2000)가 제안한 기준인 .90에 부합하였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는 RMSEA=.086으로 보통 적합도를 보였다. 경쟁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검토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824, CFI=.878, NFI=.865, RMSEA=.112로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 하였다.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Delta\chi^2=187.133$, $p<.01$). 따라서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그림 3]에 제시된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각 이론변인간의 경로계수, 이론변인과 측정변인간의 경로계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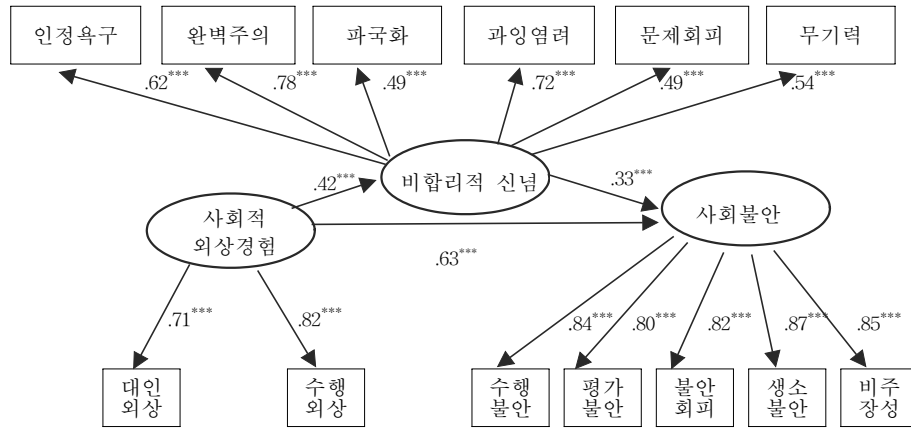
사회적 외상경험이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사회불안으로 가는 수정모형의 간접효과는 .14로 나타났다.

<표 5>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N=574)

	χ^2	df	TLI	CFI	NFI	RMSEA
완전매개	512.244	63	.824	.878	.865	.112
부분매개	325.111	62	.895	.929	.914	.086

TLI: the Tucker-Lewis index; CFI: the comparative fit index; NFI: the normed fit 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p<.001$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 < .001$)

[그림 3] 수정모형의 경로계수(N=574)

종합하면, 전체집단과 남·여학생 집단, 수정모형 모두 사회적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보다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사회적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하는 간접 영향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외상경험, 사회불안,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연구대상 전체와 남·녀 집단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외상경험, 비합리적 신념, 사회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측정변인들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사회적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높을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강민지, 2005)와 일치한다. 사회적 외상경험과 비합리적 신념은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합리적 신념이 자동적 사고에 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이후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불안과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불안의 관계를 연구한 정경아(199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외상경험과 비합리적 신념, 사회불안과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이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의 경우 사회불안에 대해 비합리적 신념과 같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지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가 잘 부합하고, 하위척도들이 적절하게 이론변인을 측정하는지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이론변인과 측정변인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 중 완벽한 해결을 제외한 나머지 측정변인들은 각 이론변인들을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었으나, 다소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는 모형의 간명성이 떨어지거나 수집된 자료가 모형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김계수, 2004). 이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모형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측정변인은 10개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 많은 측정변인으로 인해 모형의 간명성을 떨어뜨린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노안영(2006)이 제시한 이론적 구인으로 비합리적 신념 하위 요인들을 ‘자신에 대한 당위’, ‘타인에 대한 당위’, ‘조건에 대한 당위’ 세 요인으로 재조합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양호하게 나타났으나(TLI=.885; CFI=.933; NFI=.924), 절대적 적합도 지수는 나쁜 적합도를 보였다(RMSEA=.106). 이는 대학생에게 적용한 비합리적 신념의 측정구조와 관련하여, 청소년기에서는 비합리적 신념 척도의 측정변인들이 비합리적 신념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따라서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 척도 중 상관관계가 낮은 ‘비난경향성’, ‘정서적 무책임감’, ‘의존성’, ‘완벽한 해결’을 제거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즉 비합리적 신념 척도의 측정구조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집단과 남·여 집단을 대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모든 집단에서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했으며,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보다 사회적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으로 가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수정모형 또한 간접효과 보다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불안에 대한 사회적 외상경험의 직접효과 크기가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보다 더 크다는 결과는 청소년 사회불안에 있어 사회적 외상경험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서, 사회적 상황에서 외상경험이 청소년 사회불안을 설명해준데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강민지(2005)의 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적 외상경험이 청소년 사회불안의 유발 및 유지요인의 역할을 한다고 밝힌 오경자와 양윤란(2003a, 2003b)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한편 송은영(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불안의 핵심 인지 요인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하는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와 대조를 이룬다. 두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견고한 특징이 있는 비합리적 신념 보다는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동적 사고가 더 크게 사회불안에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지적 내용을 반영하는 비합리적 신념도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핵심 인지요인인 비합리적 신념과 자동적 사고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가정한 매개효과보다 직접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온 것은 비합리적 신념이 청소년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외상경험에 대한 보고 자체가 이미 개인의 평가를 거친, 외상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므로, 이 과정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 역할이 작게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기에 사회적 외상경험이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외상경험의 영향이 매우 커서 사회불안의 강력한 예언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회불안

증상이 있는 임상집단에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 증상이 있는 청소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유발하는데 있어 사회적 외상경험과 비합리적 신념의 경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인 사회적 외상경험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 특히 학교에서의 대인관계나 수행상황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요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정한 연구모형은 다소 낮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 이론적 근거 없이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모형의 수정과 재평가 단계를 거쳐 새로운 연구모형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외상경험, 비합리적 신념 및 사회불안 반응 모두 자기 보고식 검사로 측정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비합리적 신념과 같이 추상화되어 있고 의식하기 힘든 인지변인의 경우 자기 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회불안 반응을 자기 보고식 검사가 아닌 임상 면접이나 자기 모니터링 등의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 사회불안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지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매개하는 인지요인을 비합리적 신념으로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지 요인인 ‘자동적 사고’나 ‘자의식’ 등의 인지요인이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고,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경로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민지(2005).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 또래관계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개정판). 서울: 데이터솔루션.
- 김남재(1997).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의식과 인정 추구 요구. 학생생활연구, 제3권, pp.29~39
- 노안영(2006).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문혜신·오경자(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제2호, pp.429~443.
- 박선영(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영(2005).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윤란(2004). 또래관계기술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자기제시 기대와 자기통찰의 매개 중재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경자·양윤란(2003a).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2권 제3호, pp.557~576.
- 오경자·양윤란(2003b).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I: 6개월 추적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2권 제3호, pp.577~597.
- 정경아(1998).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불안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아(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동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4권 제4호, pp.887~901.
- 조용래(1999).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공포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8권 제1호, pp.17~36.
- 조용래(2006). 역기능적 신념과 발표상황의 불안반응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5권 제1호, pp.205~219.

- 최정훈 · 이정윤(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6권 제1호, pp.21~47.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 Alfano, C. A., Beidel, D. C., & Turner, S. M.(2002). Considering cognition in childhood anxiety: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578, pp.1~25.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idel, D. C.(1991). Social phobia and overanxious disorder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0, pp.545~552.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1995). A new inventory to assess childhood social anxiety and phobia: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7, pp.73~79.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lark, D. B.(1993).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 alcohol abusers*. Paper presented at the Anxiety Disorders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Convention, Charleston, SC.
- Clark, D. B., & Wells, A.(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 treat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llis, A.(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 therapy*. New York: Lyle Stuart.
- Glass, C. R., & Furlong, M.(1990).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 Affec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4, pp.365~384.
- Jones, R. G.(1969). A factored measure of Ellis' Irrational Belief System.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Vol. 29, pp.4379B-4380B.

- La Greca, A. M., & Lopez, N.(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26, pp.83~94.
- La Greca, A. M., & Stone, W. L.(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22, pp.17~27.
- McFarlane, A. C., & Yehuda, R.(1996). Resilience, Vulnerability, and Course. In van der Kolk, McFarlane, & Weisaeth (Eds.),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Morris, T. C., & Masia, C. L.(199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Phobia,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Concurren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27, pp.452~458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Social Traumatic Experience and Social Anxiety

Park, Eun-Jung* · Ha Eun-Hy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social traumatic experience and social anxiety. The subjects were 574 students(281 boys and 293 girls) who belong to the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The correlations between social traumatic experience, social anxiety, and irrational beliefs generally showed low correlations. Fit index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did not reach the standard. But except perfection is solving of irrational belief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oretical variables and measuring variables, all the rest explained theoretical variables properly. Fit index of partial mediation model was higher than full mediation model in all groups. However, the direct effect which makes social traumatic experience moves to social anxiety found higher than indirect effect mediated by irrational beliefs.

Key Words : social anxiety, traumatic experience, irrational beliefs, mediating effect

투고일 : 6월 17일, 심사일 : 7월 23일, 심사완료일 : 8월 14일

* Sookmyung Women's University